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 인 호

(청운대학교 관광레저경영학과 교수, enochoi@chungwoon.ac.kr)

목 차

< 요약 >

- I. 이야기길 개념
 - II. 이야기길 정책동향
 - III.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IV.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 참고 문헌

《요 약》

- 이야기를 중시하는 스토리 라이프와 느낌을 즐기는 슬로우라이프가 이 시대 소비트렌드를 이끄는 양대 동력임은 분명하다.
- 이와 같은 소비양식의 변화는 여가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두 라이프 스타일은 모두 인간성 회복과 체험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현대의 소비자들은 일상을 벗어나 천천히 보고 즐기고 배우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싶어 한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길이다. 도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경관을 감상하고 길 위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일찍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탐방자를 위한 국가단위 길 조성사업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을 거치면서 점점 세분화 및 전문화됨과 동시에 테마가 있는 길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유사테마를 갖는 이야기들로 이어진 지점들을 선형적으로 이동하는 길인 이야기길의 발굴 및 운영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야기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환경부, 2007)
 - 국가등산로 조성사업 (산림청, 2007)
 - 경관도로 조성사업 (국토해양부, 2008)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09)
 - 낭만가도 조성계획 (강원도, 2009)

- 국내외의 이야기길 운영 사례를 통해 충청남도의 이야기길 발굴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전술한대로 해외에서는 국가단위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National Trails, 미국의 National Trail System, 호주의 Walking Trail, 뉴질랜드의 Walkways, 일본의 장거리자연보도 등은 대표적인 자연중심형 길 관리 시스템이다. 그 외에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길 관리 및 운영 실태도 주목할 만하다.
- 국내·외의 국가 및 지역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들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스토리 테마의 명확성, 길의 브랜드화 추진, 협력 네트워크 중시 등이다.
- 충청남도는 이야기길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스토리 발굴 및 활용: 독창성과 상징성을 갖춘 스토리 발굴, 스토리 유형 구분, 스토리의 다각적 활용
 - 노선의 설정 : 기존의 길이나 노선을 활용,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근거한 노선배치
 - 체험 및 정보환경 조성 : 구체적인 실체 제공, 이벤트 개최, 안내정보의 선진화 및 표준화 이야기길 안내전문가 양성
 - 브랜딩 전략 전개 : 브랜드 네임, 로고, 슬로건, 캐릭터 등의 개발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체계 마련
- 이와 같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방문자 확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I. 이야기길 개념

- 체험형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방문자들이 보다 쉽게 길을 이용하고 길 속에서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보존·정비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부(2007)의 ‘생태문화탐방로 사업’, 산림청(2007)의 ‘국가등산로 조성사업’, 국토해양부(2008)의 ‘경관도로 정비사업’, 문화체육관광부(2009)의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 길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이 직접 도보로 이용하는가, 아니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개념과 이용범위가 달라진다.
 - 생태문화탐방로에서 지칭하는 길은 도보위주의 길이다. 등산로는 산림과 그 주변에 위치하며 인간, 동물, 또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선형의 길이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도보를 통하여 관광자원에 대한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활동 공간이다.
 - 위 세 가지가 도보위주의 길인 것과는 달리 경관도로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이 주가 되는 길이다.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와 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이야기길(Story Road)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테마를 갖는 스토리들로 이어진 지점들을 선형적으로 이동하는 길로서 도보이동,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 이야기길은 발굴된 스토리를 선형적으로 연결하고 길 및 그 주변에 방문자들을 위한 체험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안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문자들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공간이다.

Ⅱ. 이야기길 정책동향

1.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환경부, 2007)

- 생태탐방로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자연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이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수립된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에 의거, 2008부터 ‘퇴계 오솔길 생태탐방로’ 조성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0개 구간의 탐방로가 조성될 계획이다.
- 이 사업은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새도래지 등 중요한 생태탐방자원을 5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과 옛길(영남대로, 삼남대로) 등을 통해 네트워크화하여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 생태탐방로의 유형은 산·숲길, 강길, 습지길, 해안길, 보금자리길, 경관길, 문화·역사길, DMZ길 등으로 구분된다.
- 생태탐방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생태탐방자원 : 자연공원 등 자연자원, 전통가옥 등 문화·역사 자원 등
 - 길 : 생태탐방로, 접근로, 연결로로 구분
 - 탐방시설 : 안내시설 등 탐방을 위한 필요시설
 - 탐방지역 : 탐방을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숙박 포함)을 제공하는 지역
 - 거점지역 : 탐방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통 기반시설 보유 지역

2. 국가등산로 조성사업 (산림청, 2007)

- 산림청에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등산활동 지원을 위해 ‘등산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본 계획에 의하면 ‘등산로란 산림과 그 주변에 위치하면서 인간, 동물 또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형의 통로’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탐방로, 자연관찰로, 산책로, 숲길, 임도 등 휴양 및 여가활동에 사용되는 산림과 산림 주변에 위치한 길
 - 등산로의 접근 및 연결성 확보에 필요한 마을길, 농로,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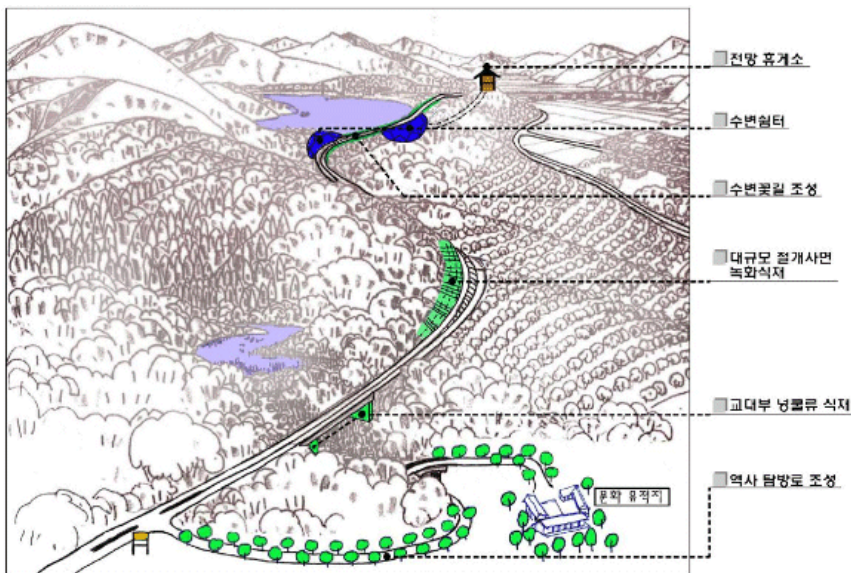
〈표 1〉 등산지원기본계획 세부 추진계획

구분	내용
등산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유형분류 및 등급지정 • 지역특색 숲길 개발 • 국가 및 지방등산로 지정
등산자원 조사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 자원조사 • 등산로 및 산악레포츠 시설 관리기준 제정 • 등산로 기본도 제작 • 등산·산악정보 DB 구축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 등산로의 정비 • 등산로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 등산로의 체험기능 강화 •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
산악레포츠 시설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도활용 산악레포츠 코스 개발 • 산악레포츠 시설 확대
등산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안내센터 설치·운영 • 등산객 안전관리 강화 • 등산교육 확대 • 산악기상예보 및 영상정보 서비스 실시
등산지원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등산문화캠페인 전개 • 산악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국제협력 확대 • 산악·등산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전달 체계 구축 • 국립등산지원센터 설립

3. 경관도로 조성사업 (국토해양부, 2008)

- 경관도로란 도로의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으로 뛰어나고 환경이 쾌적한 도로를 의미한다. 경관도로는 자연환경 및 인공물의 경치가 좋아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로자체에 의미가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경관적 가치고 없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연결하거나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
- 경관도로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역사탐방로 설치, 비탈면 녹지확충, 가로수 식재, 전망쉼터 설치, 지역특색 조형물 설치, 조명시설 설치 등이다.
- 국토해양부는 충남 태안(국도77호선 안면도), 경남 남해(국도19호선 남해대교), 경기도 남양주(국도45호선 북한강) 등 3개소를 경관도로 시범구간으로 선정하고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그림 1〉 경관도로 정비 개념도



4.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09)

- 문화체육관광부(2009)에서는 역사, 예술, 생활, 생태 등 테마가 있는 녹색문화 여행길 조성사업으로서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추진한다.
- 이 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은 ‘길’ 자체를 주요 자원으로 하며, 지역의 자원·역사문화 관광자원에 매력적인 스토리를 부여하여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4대강, 옛길, DMZ 등 국토의 선형공간을 대상으로 문화가 흐르고 생태가 살아 숨쉬는 녹색문화여행길을 구축함에 있다.
-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적·친환경적인 탐방로 조성,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제공, 효율적 정보제공 및 홍보 활성화, 탐방로의 체계적 유지·관리 등이 있다.

〈표 2〉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의 자원 종류

구분		내용
생태형	자연생태자원	강, 해안, 동·식물, 산악과 평지 자원, 수변 및 해양자원 등 생태적·자연적인 가치를 지니는 생물 또는 비생물적인 요소
	자연경관자원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새도래지, 습지 등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지니는 지역·지형 또는 이에 부속된 요소
문화형	역사문화자원	신화·전설·민담, 인물, 민속·풍습, 유적지·명승지 등 전통적·역사적 유래와 특징을 지니는 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문학·미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소재 또는 배경으로 활용되는 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특정한 문화적 콘텐츠나 아우라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 또는 생활 속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자원

Ⅲ. 국내 · 외 사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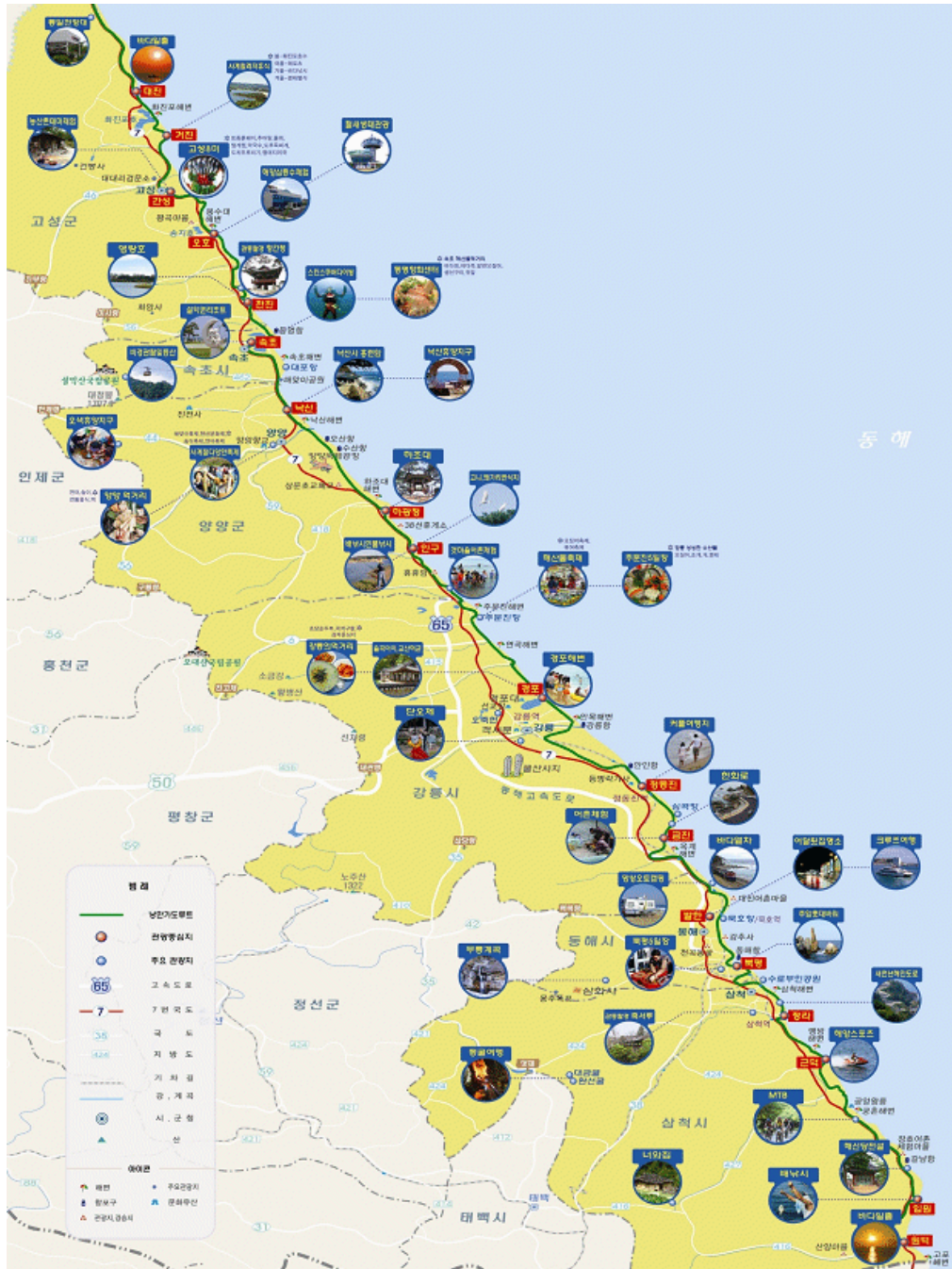
1. 국내 사례

1) 낭만가도

- 강원도에서는 독일의 ‘로만틱가도’를 벤치마킹하여 강원도 동해안 국도 및 지방도를 잇는 ‘낭만가도’를 조성하기로 했다.
- ‘낭만가도’란 동해안의 경관과 관광지 등을 바탕으로 방문객들을 관광중심지로 유입하여 숙박, 음식, 쇼핑, 체험 등의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광역적 관광브랜드이자 관광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 ‘낭만가도’란 명칭은 지역적 색채를 벗어난 일반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해졌으며, 영문표기명은 ‘Romantic Road of Korea’이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고성에서 삼척에 이르는 240km(국도 90km, 해안도로 150km 등)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총사업비용은 806억 원이며, 이용편익시설 개선사업에 264억원, 해안도로 잇기 사업에 542억 원이 투입된다.
- ‘낭만가도’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관광중심지 설치 : 18개 관광중심지 및 관광거점(안내소) 선정
 - 대표 관광상품 개발 : 드라이브상품, 투어버스상품, 문화관광상품, 계절관광상품
 - 공동홍보 및 마케팅 : 관광협의체 구성·운영, 낭만가도 인증마크제 시행
 - 기반시설 조성 : 가로수 식재, 쉼터 및 조망대 설치, 꽃길 조성, 경관조명, 조형물 등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그림 2〉 낭만가도 관광 중심지



2) 제주 올레길

- 올레길은 원래 제주어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한다. 중세어로는 ‘오라’, ‘오래’이며, 문(問)을 뜻하는 순 우리말 ‘오래’가 제주에서 ‘올레’로 굳어진 것으로 본다. ‘제주 올레’는 발음상 ‘제주에 올레?’라는 이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2007년 9월 8일 첫 코스(말미오름-섭지코지)를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13개 코스 약 247km가 개발되어 있다.

〈표 3〉 올레길 구간 및 소요시간

코 스	구 간	연장길이
제1코스	시흥초교 ~ 광치기해안	15km
제1-1코스	우도 일주	16.1km
제2코스	광치기해안 ~ 온평포구	17.2km
제3코스	온평포구 ~ 표선백사장	22km
제4코스	표선 당케포구 ~ 남원포구	23km
제5코스	남원포구 ~ 쇠소깍	15km
제6코스	쇠소깍 ~ 외돌개	14.4km
제7코스	외돌개 ~ 월평포구	15.1km
제7-1코스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 외돌개	15.6km
제8코스	월평포구 ~ 대평포구	17.6km
제9코스	대평포구 ~ 화순항 화순선주협회 사무실	8.81km
제10코스	화순항 화순선주협회 사무실 ~ 모슬포항	14km
제11코스	모슬포항 ~ 무릉2리 무릉생태학교	20km
제12코스	무릉2리 무릉생태학교 ~ 용수포구	17.6km
제13코스	용수포구 ~ 저지 마을회관	15.3km

〈그림 3〉 제주 올레길 안내도



- 올레길의 특징은 길의 작명방식이다. 지역의 명칭이나 길과 연관된 옛이야기들을 활용한 전통적 작명법과 길을 만들어 가면서 생겨난 이야기를 활용한 창조적 작명법이 그것이다. 특히, 길 만들기와 관련된 스토리는 현재진형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온다.

〈표 4〉 올레길 작명방식 사례

구분	사례	주요 내용
전통방식	조손다리길	기름장수 할망이 호미로 절벽을 쪼으며 오르다 떨어져 죽자, 마을사람들의 좁쌀 닛되씩을 거둬 돌담 쌓는 장인인 돌챙이를 사서 정으로 쪼아 만든 길.
창조방식	수봉로	올레지기 ‘김수봉’ 이 염소가 다니던 길을 직접 삼과 곡괭이만을 이용해 계단과 길을 만들어 속골과 공물해안을 연결시킨 데서 유래. 올레꾼들 사이에 회자되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해병대길	대평포구를 향하는 조른모살 해안 길을 10여명의 해군과 80여명의 해병대가 사흘에 걸쳐 손으로 돌을 날라 평탄화시킨 데서 유래.

3) 지리산길

- 지리산길은 ‘지리산생명연대(www.myjirisan.org)’가 2007년 설립한 ‘사단법인 숲길’이 지리산 자락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옛길의 흔적을 되살려 지리산길을 잇고 보전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발굴된 길이다.
- 지리산길은 지리산 둘레 3개 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80여개 마을을 잇는 300여km의 장거리 도보길이며, 2011년까지 지리산 여러 곳에 걸쳐 있는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길, 마을길 등을 환(環)형으로 연결하여 길을 완성할 예정이다.
- 지리산길은 국내 최초의 장거리 도보길 조성으로 한국형 트레일의 전형을 만들고, 길을 통한 광역 단위의 자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걷는 길 조성으로 통해 느림(slow) 지향의 문화를 확산,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신개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창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지리산길의 정비원칙은 다음과 같다.
 - 보전중심 : 옛길은 최대한 원형으로 복원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안전중심: 차량통행이 많은 아스팔트 길,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한 길, 해발고도가 너무 높은 길 등은 연결을 취한 최소한의 구간을 빼고는 제외
 - 경관중심 :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지리산과 지리산을 아우르며 흐르는 강, 들녘, 마을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을 우선으로 고려
 - 자원중심: 길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고유한 역사, 문화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연결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표 5〉 지리산길 구간 및 소요시간

권역	연장길이	소요시간	비고
남원권	50km	38시간	개통
구례권	90km	69시간	미개통
하동권	65km	50시간	미개통
산청권	60km	46시간	개통
함양권	35km	29시간	개통
합계	300km	232시간	—

〈그림 4〉 지리산길 안내도



4) 삼지천 슬로시티 돌담길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는 일명 삼지천 마을로 불리우며 2007년 12월 1일 슬로시티 국제연맹본부로부터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다.
- 슬로시티 지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고택과 더불어 돌담길 보존이 잘 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슬로 라이프 체험의 적지다.
 - 창평쌀엿, 죽염장류, 창평한과, 창평국밥, 국수, 떡갈비 등의 전통 먹거리가 풍부하여 슬로시티가 지향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있다.
- 삼지천 마을의 돌담길은 2006년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265호로 지정되었으며, 창평면 사무소 부근 3.6km에 걸쳐 이어진 길이다.
- 이 돌담길의 특징은 돌담 자체에 있다. 삼지천 마을 인근의 논에서 채취한 논흙과 돌을 섞어 만든 담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돌담이나 흙담과는 다른 독특한 축조방식을 가지고 있다.
- 이 돌담길은 도보 및 자전거로 체험이 가능하다. 현재 돌담복원 및 돌담과 어울리는 보도 및 대문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향후 주변의 주요 문화자원과 연계된 도보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삼지천 마을에서 체험가능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다.
 - 슬로투어 : 돌담길, 고재환 고가, 고재욱 고가, 고정주 고가, 고재선 고가, 남극루
 - 슬로푸드 : 전통쌀엿, 한과, 국밥, 장아찌류, 장류
 - 슬로체험 : 세시풍속 체험, 느림보 자전거 경주, 놀토 달팽이 시장, 소달구지 마을탐방, 무료자전거 마을탐방, 전통쌀엿체험, 전통떡만들기체험

2. 해외 사례

1) 영국 - National Trails

- 영국은 20세기 초에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걷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고, 2차 대전 이후 개발 사업으로부터 자연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생태탐방로가 생겨나게 되었다. 영국의 생태탐방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도보나 자전거, 말을 이용하여 통과하는 장거리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탐방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는 'National Trail'로 불리며 총 15개소가 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Long Distance Route'로 불리는 4개소의 생태탐방로가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생태탐방로 길이는 약 4,000km 정도이다.

〈표 6〉 National Trails 종류 및 특징

구분	특징
Britain's National Tra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토리 모양으로 표시하고 영국 생태탐방로를 나타냄 • 색칠한 화살표나 footpath, bridleway, byway와 함께 사용됨
Footp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만을 위한 탐방로로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함 • 토지소유자의 인가없이 이용 가능함 • 자전거, 말, 자동차 이용은 불법임
Bridle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와 말·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탐방로로 파랑색 화살표로 표시함 • 토지소유자의 인가없이 이용 가능함 • 자동차 이용은 불법임
By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말·자전거·자동차 이용자 모두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루트임 • 빨강색 화살표로 표시함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 영국의 생태탐방로는 이동수단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생태탐방로는 도토리 모양으로 표시한다. 이동수단에 따른 탐방로인 Footpath, Bridleway, Byway는 색깔이 다른 화살표로 표시하여 탐방객들로 하여금 구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태탐방로를 나타내는 심별인 도토리 모양은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색칠한 화살표 또는 'Footpath', 'Bridleway', 'Byway'와 함께 사용된다.

〈그림 6〉 영국 National Trails 지도



3) 미국 - National Trail System

- 미국의 국가생태탐방로는 1968년 National Trail System 조례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경치가 아름다운 탐방로(National Scenic Trails)와 역사적인 특징을 갖는 탐방로(National Historic Trails), 휴양을 위한 탐방로(National Recreation Trails)로 구분된다. 이러한 탐방로는 자연지역과 역사적인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며, 일반인들의 이용을 장려한다.

〈표 7〉 National Trails System 종류 및 특징

구분	특징
National Recreation Tra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야외휴양활동을 목적으로 도시지역 내 또는 도시에서 접근 가능한 Trail • 농림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에 의해 승인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길
National Scenic Tra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휴양활동의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제공되는 동시에, 트레일이 지나는 지역의 경관, 자연, 역사, 문화의 보존과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100마일 이상의 연속적인 Trail • 사막, 습지, 산악, 협곡, 강, 숲, 특징적인 지형 등을 대표하는 지역을 지나는 Trail • NTS법에 의해 지정됨
National Historic Tra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역사적인 통행로나 선사시대의 통행로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100마일 이상의 연속적인 Trail • 역사적인 길, 유물, 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 NTS법에 의해 의회에서 지정됨
Connecting-and-Side Tra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Scenic Trails, National Historic Trails, National Recreation Trails로의 접근로 또는 Trail 간의 연결로

4) 호주 - Walking Track

- 국립공원의 이용에 있어 자연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들에게 자연체험 및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탐방로로서 Walking Track으로 불리운다.
- 1960년대 중반 소방로 연결망의 일부를 탐방로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호주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표 8〉 Walking Track 종류 및 특징

구분	특징
P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쉬운 단계의 길 · 최소 사용 단계 · 표지판과 벤치 등의 시설물 존재 · 길의 표면에 약간의 포장
Walking Tr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로 상에서 방문객의 주의 요망 · 해설과 시설이 필수요소가 아님 · 지형 변경이 가해진 포장 · 표지판이 길을 찾는데 처음 사용
Hiking Tr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간의 경험이 필요 · 최소한의 시설이 있는 정비된 길 · 안전과 환경 관련 고려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 제공되지 않음 · 스스로 자연관찰
Tr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거리로 숙련된 사람이 이용가능 · 자연상태인 길표면의 변경 제한으로 길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도와 그 외의 장비가 필요
Ro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된 길에 의지 하지 않고 자연지역을 탐험 ·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함 · 어떠한 지형 변경도 없음

5) 뉴질랜드 - Walkways

- Walkways는 야외에서의 즐거움 향유, 자연적이고 전원적인 아름다움의 감상,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체험, 육체적인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목적으로 도시민들이 교외로 나갈 때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유지와 사유지를 포괄하는 도보용 도로다.
- 일반인에게 도보 레크레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뉴질랜드의 북에서 남을 잇는 도보용 도로로서 총 6단계의 코스 난이도를 갖는다.

〈그림 7〉 Walkways 보호구역 구분



〈표 9〉 Walkways 종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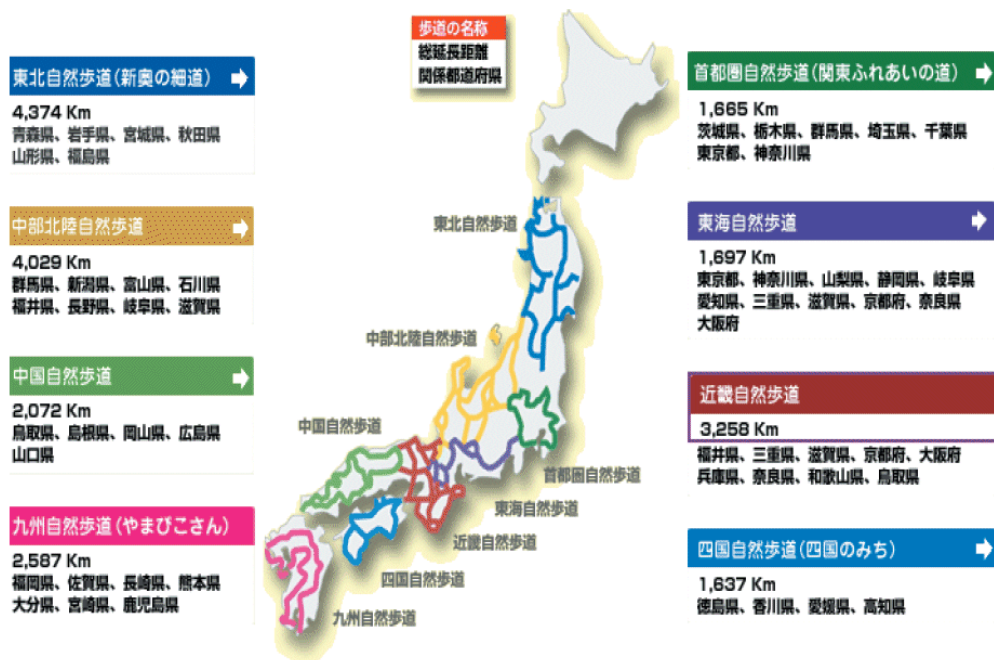
구분		특징
Easy access wa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장애인이 1시간 이내로 쉽게 걸을 수 있는 길 계단이나 경사는 거의 없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 평탄한 길
Short wa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증진 차원에서 모든 세대가 1시간 이내로 쉽게 걸을 수 있는 길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계단 및 경사가 있음
Walking tr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몇 분에서 하루까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 대체적으로 포장에 잘 되어 있으며, 거칠고 진흙탕이 있는 곳이 존재 오지 무경험들에게 적당한 하루 정도의 코스 표지가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음
Great Walk/Easy tramping tr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또는 몇 일간 도보나 하이킹할 수 있는 길 대체적으로 포장에 잘 되어 있으며, 거칠고 진흙탕이 있는 곳이 존재 낮은 수준의 오지 도보여행 경험자들에게 적당 표지, 마커 등이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음
Tramping tr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또는 몇 일간의 도보여행에 도전하는 길 대부분 비포장도로이며, 거칠고 진흙탕이 있는 곳이 존재 높은 수준의 오지 도보 여행자를 위한 트랙으로 탐색 및 생존 기술도 보유해야 함 표지, 마커, 표지석 등이 설치되어 있음
Ro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의 도보여행에 도전하는 길 정비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도로 상급의 오지 경험자들을 위해 개발된 코스

6) 일본 - 장거리자연보도

- 1970년에 처음 시작된 일본의 장거리자연보도(長距離自然歩道)는 일본 전역을 종단, 횡단, 순환하는 길로서,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자원 등이 연결된 보행자 중심의 길을 의미한다.

- 장거리 자연보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많은 사람들이 쉽고, 즐겁고, 안전하게 각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도록 체험의 장소를 제공한다.
 - 다양한 생활 속에서 “걷기로의 회귀”를 촉진시키고, 그것을 정상화시킨다.
 -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 인간과 자연과의 교류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과의 교류, 그리고 지역 간 교류의 기회를 창출하여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도모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중앙 정부인 환경성의 자연보호 관련 정책에 지방 정부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림 8〉 장거리 자연보도 현황도



〈표 10〉 장거리 자연보도 종류 및 특징

구분		특징
간선	하루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의 기본적인 단위로 하루 안에 왕복할 수 있는 코스 • 이용 상 하루 안에 가능하도록 하며 많은 테마를 가짐 • 표준 5~10km • 최장 15km정도
	연속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로써의 적합성과 매력이 부족한 도로로서 정비를 생각하지 않는 코스 • 도로, 버스, 철도, 자가용 등의 대체 교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지선	접근 용이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의 이용 효율을 올리기 위해, 사실상 자연 보도와 이용자의 출발점인 공공 운송기관의 역 등을 엮어주는 접근이 용이한 보도 • 총 보행 거리의 반 정도 • 총 1~2km
	우수 경관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연구로 등 각 지자체가 자연을 탐방하는 목적이 있는 보도로써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내표지와 방문자 센터 등의 시설이 정비된 도로 • 총 보행 거리의 반 정도 • 이용 거점을 출발, 도착지로 이용할 경우 표준 3~8km, 최장 12km 정도
	자원 연계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 가까운 곳에 매력적인 자연, 인문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보도 • 하루 코스와 같이 회유 동선을 형성 • 총 보행 거리의 반 정도

7) 호주 - Great Ocean Walk

- 그레이트 오션 워크(The Great Ocean Walk)는 호주 빅토리아 서부해안의 아폴로 베이(Apollo Bay)에서 글렌앰플(Glenamper)까지 100km에 걸쳐 펼쳐진 도로다. 걸으면서 아름다운 해상국립공원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단거리, 당일, 숙박 등 다양한 시간대별로 많은 장소를 걸어서 방문할 수 있는 도로다. 도로 중간 중간에 지역특생이 드러나는 숙박 및 식음 시설이 있고 캠핑도 가능하다.

〈그림 9〉 Great Ocean Walk 지도



〈표 11〉 Great Ocean Walk 종류 및 특징

구분	거리	시간	난이도
Shelly Beach circuit walk	2.0km	45분	중
Lighthouse cemetery and lookout walk	1.6km	40분	하
Aire River Escarpment lookout	4km	120분	중
The Gable lookout walk	0.8km	20분	하
Wreck Beach walk	2km	90분	상
Marengo to Shelly Beach	4.7km (편도)	120분	중·상
Blanket Bay to Parker Inlet hike	4km (편도)	120분	하
Cape Otway to Aire River hike	10km	240분	중
Aire River to Johanna Beach hike	12.4km	300분	중·상
Prinetown to Glenample Homestead hike	5.5km (편도)	145분	중

8) 독일 - 괴테가도

- 이 도로는 독일의 관광가도 중 하나로서 대문호 괴테의 출생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이제나흐, 바이마르 등을 경유하여 학창시절을 보냈던 라이프치히까지 9개 도시를 잇는 총연장 399km의 도로다.
- 9개 도시 곳곳에는 괴테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들과도 밀접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특히, 일메나우(Ilmenau)는 괴테가 28회나 방문한 곳으로서 그가 바이마르 궁정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곳으로, 직접 산책을 즐겼던 코스가 복원되어 있다. 일명 ‘괴테 하이킹 코스’로 불리우는 길은 총길이 18km이며, 괴테의 이니셜 ‘g’가 표시된 표지판을 따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12〉 괴테가도 도시들과 괴테의 관계

도시	괴테 관련 내용	주요 관광자원
Frankfurt	괴테의 출생지	괴테하우스, 작센 하우스 지구
Fulda	괴테가 머문 숙소들	미하엘 교회
Eisenach	괴테가 머문 장소들	바흐하우스, 바르트부르크성
Gotha	괴테가 머문 장소들	프리덴슈타인성
Erfurt	괴테가 나폴레옹을 알현한 곳	크뢰머 브뤼케 다리, 에어푸르트 대성당
Ilmenau	28회 방문	괴테하이킹 코스
Weimar	26세 때 방문	바우하우스, 클래식 바이마르
Jena	쉴러와 결의를 한 곳	광학박물관
Leipzig	라이프치히 대학 법학 전공	라이프치히 대학

〈그림 10〉 괴테가도 지도



<그림 11> 괴테가도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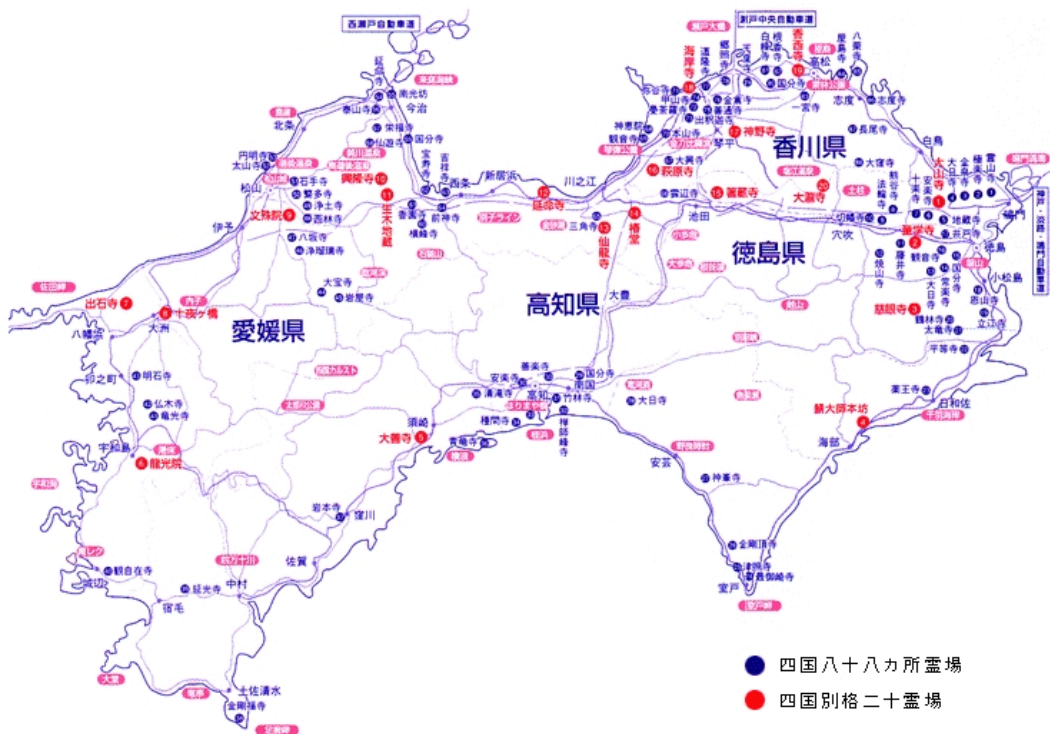
<그림 12> 괴테 하이킹 코스 지도와 안내표지



9) 일본 - 시코쿠 순례길

- 총 거리 1,400km에 이르는 일본 시코쿠 지역의 순례길이다. 애초 순례자들을 위한 길이었으나 최근에는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을 찾기 위한 일반인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 약 1,200년전 코보대사(弘法大師)가 42세 때 고난에 빠진 이들을 위해 만든 사찰이 시코쿠 영지다. 홍법대사가 입적한 후 그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찰 순례가 승려들로부터 시작되어 일반 신도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림 13〉 시코쿠 순례길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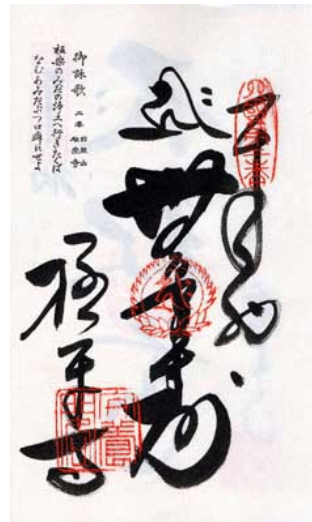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 총 88개의 사찰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은 토쿠시마 23개, 코치 16개, 카가와 23개, 에히메 26개 등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전통순례복장을 한다. 각각의 사찰에서는 각각 고유의 문양을 준비하여 순례자들에게 확인도장을 찍어준다.

〈그림 14〉 시코쿠 순례길 참가자 이미지



〈그림 15〉 시코쿠 순례길 사찰 인장



3. 시사점

1)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주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탐방로 중심의 국가단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탐방로의 종류를 거리, 난이도, 자원의 특색, 테마, 지역 등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방문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2) 스토리 테마의 명확성

- 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이야기길을 설정할 때는 발굴된 스토리에 기반하여 지역의 특색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테마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자의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3) 길의 브랜드화 추진

- 수많은 길들이 경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길을 브랜드화하여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브랜드 네임, 로고, 슬로건 등을 내세운 전략으로 잠재방문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4) 협력 네트워크 중시

- 동일하거나 유사한 테마로 연결되는 사업의 경우 여러 지자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한다. 각각의 주체가 협력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민간, 지자체, 중앙정부 등의 주체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IV.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1. 스토리 발굴 및 활용

1) 스토리 발굴

- 가시성이 뛰어난 경관이나 지형, 해당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 다른 장소에서는 보기 어려운 상징성 등이 대표적인 스토리가 된다. 스토리를 발굴함에 있어 명심해야 할 점은 특별함을 중시한 나머지 장소가 보유한 일상성의 매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스토리는 지역연장자, 향토사학자, 역사적 인물의 후손, 고문서, 논문, 서적, 매스미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하며,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한다. 스토리 원형은 아래와 같이 문화, 자연, 산업, 장소·시설 스토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표 13〉 스토리의 유형

구분	주요 내용
문화 스토리	신화, 전설, 민담, 인물, 언어, 축제·의식, 민속·풍속, 건축, 조각, 회화서예, 서적·활자기기, 공예·자기, 전통 및 테마 마을, 유적지·사적지
자연 스토리	동·식물, 보호구역, 산악 및 평지 자원, 수변 및 해양 자원, 경승지
산업 스토리	산업현장, 유명상점, 시장, 쇼핑물, 공장
장소·시설 스토리	관광지구, 공원, 전시·관람 시설, 스포츠·체육시설, 숙박시설, 식음시설, 쇼핑시설, 교통시설, 유원·휴양수련시설, 부대시설, 관광안내소, 안내표지, 안내전화, 화장실, 휴게소, 공중전화

2) 스토리 원형 활용

- 발굴된 스토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 활용할 수 있다.
 - 첫째, 사실형 방식이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미 발굴되어 있는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 둘째, 창조형 방식이다. 새로운 스토리를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스토리를 도입하는 형태다.
 - 셋째, 응용형 방식이다. 주로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알려진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2. 노선의 설정

1) 노선설정 원칙

- 이야기길의 노선은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길 조성을 지양하고 기존의 길이나 노선을 최대한 활용한다.
- 안전성이 높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길을 선택한다.
- 이용하기 어렵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자원들은 제외한다.

2) 노선설정 고려사항

- 이야기길의 노선은 스토리의 문화재적 가치, 스토리텔링적 가치, 체험가치, 수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문화재적 가치란 스토리 원형의 역사적 가치가 높고 시대를 대표하며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 스토리텔링적 가치란 스토리 원형이 흥미롭고 몰입이 가능한 이야기형 구조의 루트로 연결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 체험가치란 방문자가 오감을 동원한 스토리 원형 체험이 가능한가,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져 재미를 줄 수 있는가의 문제다.
- 수용가치란 스토리 원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인근에 관광자원이 풍부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방문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계절성이 적은 것도 이에 해당한다.
- 현재 충남지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이야기길 노선은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해안생태길, 내포권을 중심으로 한 보부상 활동길, 천주교 전래길, 선불교길, 선비문화길, 금강역사체험길 등이 있으며, 향후 이야기길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이 중 해안생태길은 일명 ‘에코로드’로 칭하며, 해안선을 따라 내리항부터 학암포, 구례포, 신두사구, 의항, 백리포, 천리포, 만리포, 파도리, 통개항, 신진도, 안흥성항, 몽산포, 청포대 등을 잇는 길과 안면도 내의 주요 해안 경승지를 연결하는 길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길은 차량보다는 도보로 통해 해안의 절경을 감상하는 형태의 체험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체험 및 정보환경 조성

1) 체험환경 조성

- 스토리 체험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스토리 발굴을 통해 정해진 테마를 일관성있게 구체적 실체를 통해 방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과정을 통해 관광객은 주체적으로 스토리를 체험함으로써 장소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체험들이 모여 사회적 의식으로 구성될 때 장소성이 생긴다.
- 체험환경 조성방식에는 축제나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광객들이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인식하고 있던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체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 구체적 실체를 제공한다는 것은 건축물, 구조물, 공간 등을 랜드마크화하고 플롯에 의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방문자의 관심과 몰입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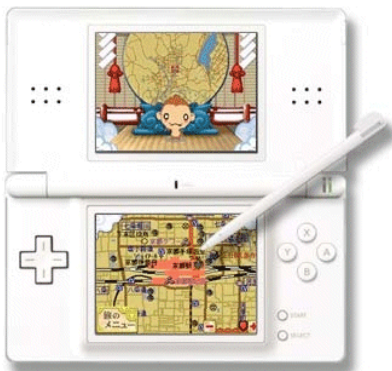
2) 다양한 안내정보환경 조성

- 관광안내정보는 방문관광자의 지역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잠재관광자의 방문욕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다양한 접점에서 관광객에게 적절한 안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길을 체험하는데 도움을 준다.
- 관광안내정보는 크게 안내정보, 안내소, 안내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안내정보는 다시 지도, 표지, 홍보물, 전자정보로 나뉜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정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지도 표준화 사업을 전개한다. 수치지도에 근거한 입체형 지도를 다른 안내정보매체에 활용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통일된 인지도를 갖도록 해준다.
 - 스토리텔링형 해설표지를 선진화한다. 텍스트 위주의 설명, 불량한 규격, 조악한 디자인, 색상의 부조화 등이 현재 우리나라 해설표지의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따라서 충청남도 이야기길에 설치하는 해설표지는 원형발굴에 기초한 스토리와 사진을 담은 선진형 표지를 지향해야 한다.

- 현재는 웹 2.0기반의 1인형 미디어 전성시대다. 관광지의 의미는 개별관광객의 체험이 모여 그들의 담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마케팅조직과 관광객, 지역주민과 관광객, 관광객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웹커뮤니티(블로그, 카페, 클럽 등)를 적극 개설해야 한다.
- 또한, 엔터테인먼트형 소비시대의 관광객은 즐거운 정보를 찾으려 한다. 따라서 게임기와 결합한 안내정보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휴대용 관광게임 사례〉

- 일본의 여행사 JTB는 2008년 2월 게임업체인 닌텐도와 ‘DS와 함께 교토여행을 떠나요’ 라는 게임소프트를 개발·출시하였으며 연간 5만대 판매가 목표임



3) 이야기길 안내전문가 양성

-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충남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정체성이나 자부심이 떨어진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충남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전문 스토리텔러 육성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일본의 오타루나 잉글랜드의 경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교육시킨 후 등급별 자격을 주어 방문객들과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오타루 안내인 사례〉

- － 일본 오타루시에서는 시민자치조직인 오타루관광대학에서 오타루시의 관광진흥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근무경력과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단계별 자격증 (마이스터 - 1급 - 2급)을 부여하고 있음



4. 브랜드 전략 전개

1) 브랜드 네임 개발

-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가 및 지역별로 길을 브랜드화하여 특색있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충청남도의 정서와 길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 네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길 자체가 그림의 미학을 추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지역의 정서가 여유로움을 대변한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브랜드 네임의 개발이 가능하다.

2) 브랜드 로고와 슬로건 개발

- 로고와 슬로건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념을 표현하는 상징물로서 충청남도 이야기길이 시장에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컨셉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주민과 방문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 오직 충청남도 이야기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충청남도, 스토리, 그림, 여유, 행복’ 등의 상징이 부각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Great Walks 로고 사례〉

- 뉴질랜드의 Great Walks는 New Zealand Walkway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이 모인 브랜드임
- 동일한 포맷의 원형 테두리의 중앙부에 각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새겨 넣었으며, 색상을 각기 달리하여 지역색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



3) 브랜드 캐릭터 개발

-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는 것은 바로 캐릭터이다.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또는 역사적 사실 외에도 느낌과 여유로움을 상징하는 동물, 식물, 기타 의인화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여 캐릭터를 개발해야 한다.

〈토로 캐릭터 상품 사례〉

- 일본 소니엔터테인먼트의 게임 캐릭터인 ‘토로’는 게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는데 그 중 여행을 하기도 함.
- ‘토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출시되어 원소스 멀티유즈를 지향하고 있음



5.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전문운영조직 구성

- 독일의 관광가도 중 장난감가도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힌다.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관광분야의 전문가가 배제되었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체계적인 사업수립 및 마케팅 계획이 진행될 수 없었고 관련 지자체의 탈퇴가 이어졌다.
- 이에 비해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권의 지리산길 등은 모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다. 아직 그 성공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진행형 사업이지만 전문가의 참여가 기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충청남도 이야기길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분에서는 이야기길 심사 및 선정, 운영 중인 이야기길 평가, 이야기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부분에서는 이야기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2)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 이야기길 조성 및 체험활동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독일의 관광가도, 일본의 풍경가도 등에 속하는 자치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사한 테마를 갖는 이야기길의 경우 국제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글로벌 상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최 인 오, enochoi@chungwoon.ac.kr

영운대학교 관광레저경영학과 교수

Tel. 041-630-3282

◆ 참 고 자 료 ◆

- 강원발전연구원, 2008, 독일의 관광가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 경기개발연구원, 2008, 경관도로의 평가기법 개발방안.
- 경남발전연구원, 2007,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경민선, 2009, 일생에 한번은 순례여행을 떠나라, 21세기북스.
- 문화관광부, 2009,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기본계획.
- 서명숙, 2009, 제주걷기여행, 북하우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시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방안.
- 인천발전연구원, 2008, 인천시 개항장 도보관광 안내체계 개선방안.
- 전북발전연구원, 2008, 생태문화탐방로 지역단위계획을 위한 기본모형 연구.
- 최인호, 2008,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32(4): 411~429.
- 환경부, 2007, 전국단위 국토생태탐방로 조성계획 연구.
- 日本風景街道戰略會議, 2008, 日本風景街道の實現に向けて提言.
-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2007, Overview of existing walking trail classification systems.
- <http://www.goethestrasse.info/>
- <http://www.jejuolle.org>
- <http://www.junpai.co.jp/>
- <http://www.nintendo.co.jp/ds/software/ytkj/index.html>
- <http://www.trail.go.kr/>